

佛心달래기 초청... "교계 앙금 여전"

불교계지도자 청와대오찬 안팎

1·21 김대통령 군교회 예배사건이 발생한지 한달만에 마련된 불교계지도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 대해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외국순방에 앞선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차원에서 마련된 것일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사건 직후 이양호 국방부장관, 김윤환 신한국당 대표 등의 사과표명에도 불교계가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분위기가 지속되자 총선으로 앞서 '불심(佛心)달래기' 일환으로 청와대오찬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교 월드컵유치 및 평화통일 기원대회 준비 상황 '태고종 총무원장의 취임' '전태종이 서울에 건립중인 관문사 진척상황' '한 일 불교교류현황' '승가대이전' 등을 묻는 등 불교계현황에 비교적 세심한 관심을 표명. O...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이 "불교계가 김대통령을 대통령후보 때부터 지원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서적으로 소원해지고 지지세력도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대통령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불교계를 꺼안고 크게 베풀어야 될 것 같다. 대통령의 종교에 대



◇김영삼대통령은 1·21 군교회예배사건 발생 한달만에 불교계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기독교인이지만 종교편애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 "의전·경호상 잘못 있었다" 비공식 사과

22일 오찬에 앞서 불교계지도자들과 김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담담. 김대통령은 "태국 인도등 불교국가 순방에 앞서 국내 불교지도자들을 만나고자 했다"고 인사. 월주스님이 "인도는 불교발상지이므로 불교성지 몇군데를 둘러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김대통령이 "지방이라 곤란하다"고 답변. O...이어 마련된 오찬자리에서 김대통령은 "22일 열리는 범

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언론에 김대통령이 기독교에 편향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적어도 다른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자 김대통령은 "절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편애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교계를 위해 더 지원했다고 본다. 국가이익을 위해 불교계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 O...월주스님은 다시 "대통령이 인사 행정 때 특정종교에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왔다"고 예를 들자 김대

통령은 오찬자리에 배석한 박세일 사회복지수석과 이각범 정책기획수석을 지칭하며 "이들도 불교신자라 아니다. 사실 두 수석도 불교신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기용하려 한 것은 아니며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인사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은 없다"고 강력 부인. O...월주스님은 또 김대통령에게 국방부교회 예배사건과 관련해 폭넓은 종교정책을 당부. 배석한 김광일 비서실장이 "각하(국군교회 예배에 대해) 답변할까요"라고 하자 김대통령이

"됐어. 그건 됐어"라며 국방부에 배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참석자들이 전. O...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된 청와대 오찬을 마치고 김광일 비서실장은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김대통령 군교회 예배사건과 관련, 의전과 경호상 잘못이 있었다며 사과를 표명. O...청와대측은 오찬 갈굼수에 열치국물 대신 다시마 국물을 쓰는 등 스님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 O...한편 청와대 오찬에 초청 받았던 설성스님(조계종 중앙종

회회장)은 "불교 편향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시정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없이 오찬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 O...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종교편향정책 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효림스님)는 청와대 오찬에 대해 "김대통령과 현정부의 시간벌기 및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 표밭잡기에 불과하다. 빠른시일내에 김대통령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 전국교 승·재가 단체들도 청와대 오찬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없자 강력 규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준엽 기자

2천만 불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영상포교의 새 장을 선연했던 불교TV가 3월 1일로 개국 1주년을 맞는다.

개국이후 지난 1년간 불교TV는 초기 케이블TV 가입자 저조, 케이블 전송망 설치부진, 케이블 컨버터공급량부족 등 케이블TV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세계 최초의 불교영상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지탱해 왔다.

불교TV의 개국으로 우리 불자들은 안방에 앉아 산사의 큰스님 법문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 첨단영상시대 도래에 맞춰 불우인 이웃의 어려움을 생방송으로 알리는 '자비의 천수천안'과 심신과 교리를 겨루는 '퀴즈 이뤘꼬' 등은 모범적인 실험과 포교의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끈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같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3월 개편에서는 '현장소! 스타를 찾아라'와 교계 주요관심사를 진단하는 시사프로그램 'TV대중공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신설, 일반시

'불자 TV'서 일반시청자 확보단계

3월 1일 개국 1돌 맞는 불교TV

山寺 법문·신행 현장 등 '안방전달' 큰 몫 재정안정·프로 개발·불자 지속관심 필요

침차까지도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마련했다. 즉 '불자만이 보는 TV'에서 '불자들이 적극 참여해' 나아가 일반시청자들의 채널도 고정시키는 프로를 대폭 신설한 것.

그러나 지난 1년간 재정난에 시달려온 불교TV는 여전히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선결과제로 두고 있다. 불교TV는 지난해 3차례의 주식공모를 통해 재정문제를 타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재정확보의 최대 관건중의 하나인 광고수입에서 아직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구책

마련을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고 각 사찰이나 단체,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 주는 등 수익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확보문제를 더불어 불교TV가 해결해야 될 또하나의 문제는 시청률 확보. 최근 지역방송(SO)개국, 케이블TV 설치 비용 감소 등으로 가입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많은 신도수에 비해 케이블TV 가입 가능인구가 실제로 비해 케이블TV 가입 가능인구가 실제로 비해 케이블TV 가입 가능인구가 실제로 비해 케이블TV 가입 가능인구가 실제로

"불교단체·지역사찰 등과의 연계확대를 통한 불자공동체구축으로 시청자 끌어 모으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교TV가 공중파의 종일방송과 위성방송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방송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교체널의 특성을 살린 노하우를 축적하고 고정시청자를 확보하여 전문방송으로서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해야만 한다. 불자들의 성금과 불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화를 뒷받침할 고품격의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이 향후 과제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품질과 맞물려 있는 경영관 타개야말로 불교TV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TV가 손익분기점으로 보고있는 오는 97년까지 정상개도예의 진입여부는 고정 시청자 확보를 통한 매체경쟁력 향상과 불자들의 애정어린 시선에 달려있다는 중론이다.

이은자 기자

시론

북한을 바라보는 '눈'

최근 북한심장부 평양 한복관에서 벌어진 총격사건,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씨 일행의 모스크바 잠적후 망명요청 등 잇따른 탈북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14일 평양에서의 망명기도 총격사건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통제사회에서 체제의 나사가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우리에게 대북 문제에 있어 새로운 대응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 체제붕괴 조짐인가

이번 사건은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잇따른 탈북사태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김일성 사후 신격화된 카리스마 사라짐으로써 북한을 지탱하는 중간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귀순자 김형덕씨의 밀입북기도 사건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씨는 현재 귀순상태에 있어 정확한 탈출동기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일 우리 사회적응에 실패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밀입북을 시도했다면 그 책임의 반은 우리쪽에도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귀순자의 68%가 정신과 심리적인 면에서, 또 9%가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북한에서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북한보다 나은 생활에 만족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스러워하고 이를 견디다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귀순탈북자 관리와 사후대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해졌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순자들에게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대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귀순해온 56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 일정한 직업없이 막노동만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체적인 다름에 있어 관련부처간 협의체제가 미비하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원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련의 흐름속에서 북한체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모순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체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현재 북한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간내에 북한정권 또는 체제상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이나 노선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며, 밀로부터의 저항세력이 조직화될 조짐도 아직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장기간의 내림생활로 공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구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난이 체제붕괴로 직접 이어지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셋째 북한은 대남 긴장상태 조정을 통해 대내적 위기상황의 원인을 남한에 전가함으로써 내부결속을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고위층 또는 특수계층의 탈북현상이 북한체제 붕괴의 직접적 징후로 보기에 이르지는 분성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탈북자 증가 등 일련의 체제균열조짐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에 대비한 우리 나름의 장단기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북한 체제에 구멍이 나고, 혼란과 탈북사태가 확산될 경우 이는 곧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으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로서는 탈북사태를 막기위해 내부 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험적인 도발을 자행할 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통일안보정책 조정 회의에서 단계를 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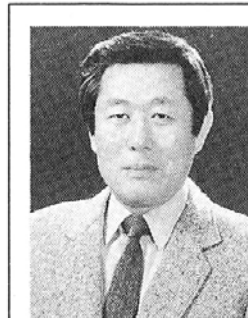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귀순자 생활안정 도와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북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관건이다. 현재,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각지에서 1천2백여명이 귀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한국정착에 협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송환 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귀순자들은 우리 사회가 북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믿고 생명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않는 북한동포보다 우리 능력이 미칠 수 있는 귀순자들의 생활보호에 국민적 관심, 특히 종교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 광 식
(KBS 해설위원)

생활 속의 불교 63

가지는 동치에서, 동치는 뿌리에서

"진정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 어떻게 남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으랴? 자기를 잘 단련시킴으로써만이 자기를 의지처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는 실로 성취하기 어렵도다." 법구경(法句經)의 말씀이다. 팔리어 경전의 다른 번역은 이렇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주체는 분명 자기 자신이다. 부처가 내 옆에 있고 선지식이 내 손을 잡아 준다 해도 깨달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맛을 보고 맛을 느끼는 주체는 바로 자신이다. 그러나 자신이 주체라 할지라도 어찌해서 자신만이 의지처인가? 부처나 선지식이 의지처가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왜 부처님께서는 미거한 중생들에

게 부처를 의지처로 삼아라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을까?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지금까지 줄곧 부처와 함께 있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지금도 부처와 함께 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앞으로도 줄곧 부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부처와 한 마음이다. 고로 나를 의지처로 삼는다 함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을 부처-내 속의 부처를 의지처로 삼는다는 뜻이다. 내 속에 부처가 있고 내가 본래로 부처인데 그 부처를 안 믿고 따로 누군 믿으며, 따로 누군 의지처로 삼을 것인가. 법구경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의지처인 자기 자신이란 육신의 겉질로 포장된 야성·야만의 자기가 아닌, 바로 부처와 한마음인 내 속의 부처-주인공인 것이다.



나무의 잎새는 가지에 의지하고, 가지는 동치에서 나오고, 동치는 뿌리에 의지하고 있다.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모든 능력은 토양 속에 깊숙이 뻗어 있는 뿌리로부터 나온다. 나무는 뿌리를 자기의 의지처로 삼고 있다. 나무의 뿌리가 말로 모든 능력을 배출해 주는 원천이자 주인인 것이다. 고로 나무가 제 뿌리를 의지처로 삼지 않고 다른 나무의 뿌리를 의지처로 삼는다면 그 나무는 이미 나무이기를 포기한 것이 된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은 나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이며, 본래부터 보리의 존재인 때문이다. 부처님께서께서는 수행을 통해 그 점을 깨달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 주셨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께서는 새삼스럽게 보리를 얻으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보리의 존재임을 아시고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니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갈파하신 것이다.

부처님의 정각. 보리는 얻는 게 아니다. 어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얻기 이전엔 없었던 것이 된다. 또 새삼스레 얻은 것이니 잃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시적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지금껏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이며 앞으로도 부처'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본래부터 부처'가 아닌 게 없다. 고로 얻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법구경은 말한다. 나무가 제 뿌리를 의지처로 삼듯이 내 속의 부처-주인공을 의지처로 삼는 게 바른 수행이며 나 자신이 일체제불과 한마음임을 믿는 것이 바로 신행이라고.

협찬: 한 용 수